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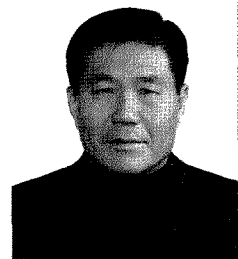
조경수 생산과 개선방안



들어가며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까지 전통적인 어느 특정 한 지역개념에서 벗어나 전 지구를 대상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될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사회의 분화가 복잡화·다원화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밝은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적극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화로 빠르게 이행되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국가로 성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조경수 산업의 과거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조경수의 생산에서 밝은 미래의 비전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화와 세계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발전적인 조경수산업 육성을 위해 조경수 생산·소비·유통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조경수 조성·관리 및 생산·유통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알아 본다.



자문위원 농학박사 |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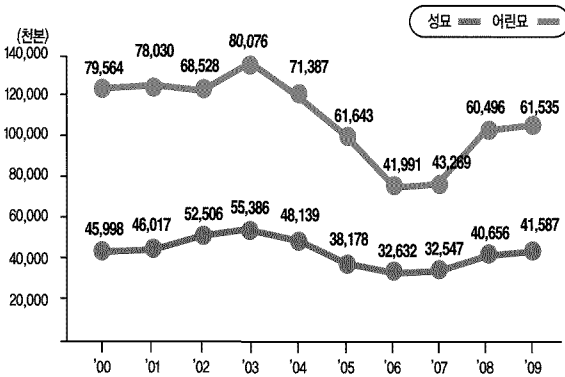
1. 조경수 생산 정보

조경수의 생산정보 및 수급 가능량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서 수익성 있는 수종의 선정과 재배, 그리고 시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계획성 있는 기초자료 없이 종류가 다양하고 시기적·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자들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과잉생산이나 품귀현상과 같은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조경수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안정적이고 이용예측

가능한 수목의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간상인이 전국의 생산시장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중간에서 막대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조경수의 생산

현재 조경수목 경영규모는 평균 약 1.2ha로서 해를 거듭 할수록 경영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생산자는 임대포지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영규모의 영세화는 생산 운영자금의 압박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하여 중·대형 목 위주의 생산보다는 조기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생산기간이 짧은 소형목 및 관목류 등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어 장기간을 요하는 대경목 조경수생산은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 최근에는 일부 대형수목의 품귀현상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조경수 10년간 조경수(성묘 어린묘) 생산실적(산림청 통계2010)

2) 조경수 생산자의 정보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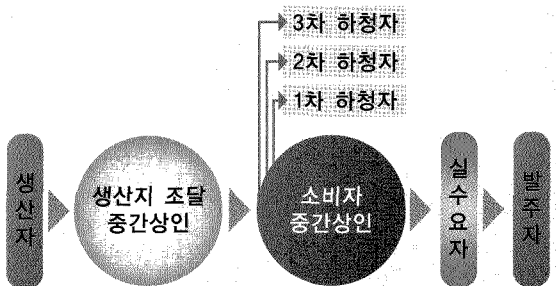
조경수목의 수급현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가능한데 더욱이 일반생산자가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인기수종에 관심을 두고 집중적으로 대량생산하여, 때로는 과잉 생산되어 값이 폭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생산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경수

생산자들의 상호정보제공 기피현상으로 생산수종, 수령, 규격 등 생산실태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생산자는 정부의 계획기관발주처 등에서 정보제공으로 오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의 폭락현상이나, 다른 수종을 선택할 때 품귀현상도 일어난다.

2. 조경수 유통분야

1) 유통정보시스템 미흡

조경수의 유통정보란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공간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경수 생산자, 중간상인, 조경업체, 그리고 최종소비자라 할 수 있는 공사 발주자와 함께 이들 조경수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모든 산업관련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계획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조경수의 정보체계의 기능이라 하겠다(최관, 1999). 그러나 현재의 조경수 생산과 수요정보는 중간상인에 의하여 전국에 생산된 조경수 묘목을 몇몇 사람에게 의하여 개인 영리목적에 치중함으로써 생산자들은 소비자와 직거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몇 단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생산자는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유통정보 수집 및 효율적인 전달수단을 위한 유통정보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 조경수목 유통경로

2) 도매시장의 부재

도매시장의 형성은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가격으로 판매를 보장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모든 생산정보와 이에 따른 가격형성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조경수의 경우에는 상품이 살아 있는 생명체이면서 구매에서부터 이식을 거쳐 새로운 자연환경하에서 활착된 후 장기간의 관리를 통하여 본래의 소비욕구가 충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현재 중간에서 가지는 정보에 따른 정상시장으로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나무시장과 같은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

3) 규격화의 기준 미비

조경수는 생물체로서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수종이라도 비배관리, 영양상태 등 재배기술 상의 차이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수목의 활력도와 성장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조달청이나 조경수협회에서 고시한 현행 조경수 유통규격은 대부분 수목의 수고, 흉고직경, 수관폭, 근원직경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수관, 지하고, 수관길이 등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준들은 조경수의 형태와 크기에 관계되는 요인들로 수목의 건강상태, 활력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자와 생산자 간 신뢰를 위한 세분된 품질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4) 조경수 수출입

조경수는 식물이라는 특성상 대부분 수출 시기가 휴지기인 동절기에 한정되어 연중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수입국의 엄격한 식물검역 요건이 적용되어 통관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또 다른 원인으로 홍보부족 등으로 한국 조경수의 가치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인식이 부족하며 일본보다 기술력이 뒤지고,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양이 반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묘목만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토양소독과 성목도 수출이 되어야 한다.

3. 조경수 정책 · 제도분야

1) 조경수 전담기구 부재

조경분야는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기능적 목적으로 조성되는 종합적인 국토경영·관리 분야로서 그 범위가 넓어 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다. 국토와 관련되다 보니 총괄적으로 건설부에서 시설조경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고, 조경수 재배 및 생산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담당하며, 조경수 가격결정 및 수급 등 유통분야는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에서 환경과 관련된 분야, 농림부에서는 식물검역과 관련되어 있다. 조경수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산림청은 산림을 대상으로 중·장기 산림정책 전담부서로서 이제까지 산림녹화 및 산림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관제로 조경수 전담부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질적 조경수목 생산 및 조성관리, 유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기술교육 및 연구기관이 부족하여 국제화시대 대응에 미흡한 실정이다. 2009년도 말 현재 조경수생산이 전체 임업생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2) 조경수 생산자금의 지원

조경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적절한 운영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조경수 생산은 대부분 최소 10년 이상 재배되어야 일정 규격의 상품이 생산되지만, 현행 산림청 시책에 의하면 단기소득 임산물로 취급하여 이차보전 자금으로 3년 거치 7년 상환(3%)으로 약 30~40억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임업생산액의 약 25%인 약 8천억, 생산 임가 약 7,500호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이 한정적으로 지원되어 생산 임가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4. 조경수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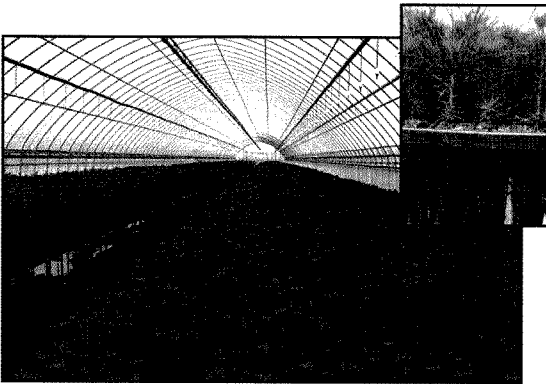
1) 새로운 상품종 미비

국내 조경수 생산자는 생산의 수급 안정성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수종을 택하여 집중적으로 재배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조경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현

재 고시하고 있는 수종을 적용하여 공사를 설계하고 있어 생산자가 많은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통하여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들 신품종이 조달청에 고시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후야 등록됨으로 공사설계단계에서 외면하게 되고, 이러한 수요의 부재는 생산자의 신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 시킬 수도 있다.

2) 시설양묘 및 컨테이너재배 확대

이제 우리나라도 노지재배에 보다는 시설재배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력이 한계가 왔다. 이런 조건은 삼목, 접목에 의하여 품종을 유지하면서 대량 균일 묘목을 생산하는데 적합하다.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 내에서는 온도, 습도, 광도 등을 조절하는 기본적인 장치와 환기장치, 차광막 조절장치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노지재배보다 시설비가 다소 많이 투입되지만, 효율적인 조경수 생산과 대량규격화 생산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이다. 컨테이너묘목 생산은 어느 정도 연구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큰 컨테이너에 의한 수목재배에 대한 분야는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품종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야 한다.



시설양묘 및 컨테이너재배

3) 조경공사에 따른 중·장기 수급계획

현재 중·장기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각 지방의 혁신도시, 4대강 건설 등으로 인하여 대형 정부발주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많은 수종 및 규격별 조경수가 소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

다. 조경수목의 특성상 단시일 내 공산품처럼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생물적인 산업임을 고려할 때 산림청 및 조달청 등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목 조경수가 품귀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멀지 않은 장래에 예측하지 못한 수급 계획 차질이 올 것을 대비하여 중·대형목 규격 조경수를 대상으로 계약재배하거나 국가 직영묘포장 등을 활용하여 계획 생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컨테이너 대형묘 생산 (체코)

5. 맺음말

지구 온난화로 조경수 생산품종이 기후적으로 생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부 난대수종은 중북부지방에서 월동하고 있어 그 생태적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다양한 조경수 품종을 생산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조경수목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북부지방에서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전나무류, 주목, 자작나무, 참나무류, 서어나무 등이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이팝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목련, 비목나무, 계수나무, 때죽나무 등, 남부지방에서는 가시나무류를 비롯하여 동백나무, 감탕나무류, 먼나무, 녹나무, 배롱나무, 사철나무, 영산홍, 철쭉류, 유럽만병초 등 위주로 특화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